

# 광주 시·전남 블루이코노미...미래 먹거리 산업 탄력

## 내년 예산안 광주·전남 어떤 사업 반영됐나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정부 예산안에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현안사업이 상당수 반영됐다.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요청했던 일부 현안 사업들의 경우 아예 빠지거나 일부만 반영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양 시·도는 이에 따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보조를 맞춰 예산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굵직한 신규 사업**이러곤 '인공지능(AI)신단 조성' 뿐-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광주 신규사업은 78건(1492억원)으로 당초 건의했던 117건(3459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계속 사업은 193건(2조3168억원)을 건의했지만 185건(2조713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시는 신규사업 78건(1492억원)이 반영돼 향후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들었다.

인공지능(AI)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26억원) ▲라이프케어로봇 실증기반 조성(32억원) ▲시니어 코스메디케어 실증센터 구축(25억원) 사업 등이 반영되면서 신산업 혁신성장기속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신규사업과 관련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는 긍정평가와 '인공지능산업 외에는 굵직한 신규사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공존한다.

복지 사회안전망 확충 및 청정환경 구현을 위한 사업비도 다수 확보됐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99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28억원), 가사간병 방문지원(12억원),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40억원),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98억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86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21억원) 등이 반영됐다.

5·18 제40주년 기념사업 추진(10억원), 민주인권평화 근현대사 120년 전시회(5억원), 2020년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5억원), 미니스비엔날레5·18민주화운동 특별전(5억원) 사업비도 반영됐다.

그러나 이용설 시장이 역점을 둔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으로 1205억원을 신청했으나, 절반 이상 깎인 426억원만 편성됐다는 점에서 사업 속도와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사업은 울초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으나 사업부지인 첨단3지구 그린벨트 해제 등 사업 추진에 위

한 선결과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이 내년도 사업비 감액 사유로 지적된다.

인공지능(AI)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은 향후 10년간 약 1조원을 투입해, 첨단 3지구에 인공지능 관련 산단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주를 인공지능 선도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서남해안 접근성 향상**, 경전선은 기대 못미쳐-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남도내 신규사업은 51건(2163억)으로 애초 건의했던 171건(4385억)에 비해 다소 못미친다. 계속 사업에 대한 반영액도 요청했던 금액(80건 1조3515억)보다 적은 73건 1조174억원이다.

전남도가 핵심 프로젝트인 블루 이코노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등과 관련된 상당수 신규 사업을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분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우선, 전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과 해양경찰 서부정비장 구축 사업 예산을 처음으로 반영시켰다.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의 경우 지난

### 광주시

복지사회안전망 구축·청정환경 구현 사업비 다수 확보

5·18 제40주년 기념사업 추진사업비 10억 반영

### 전남도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해양경찰 서부정비장 구축

압해~화원 국도 사업비도...경전선 전철화 기대 못미쳐

2015년 1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갔으나 5년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다 이번엔 기획재정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통과하면서 첫 사업비로 21억원을 확보했다. 신규 사업의 경우 첫 국비 지원이 이뤄진 만큼 계속사업으로 내후년도에 추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전체 사업비(1606억)의 국비 확보 길이 열리게 됐다.

해양경찰 서부정비장 신설사업도 최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이번 예산안에 82억원을 반영, 본격적인 신설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서부정비장이 신설되면 서해와 남해, 제주해역 경비정의 적기 수리로 여중지원 보호 및 해양안전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인 ▲편역치로 혁신플랫폼 구축사업(블루 바이오·20억) ▲소형 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 및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증사업(블루 트랜스포트·20억) ▲초대형풍력 실증 기반구축(블루 에너지·59억)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블루 투어·7억원) ▲AI 기반 수확용 스마트팜 로봇 개발 및 실증(블루 농수산·20억) 등이 신규 사업으로 정부 예산을 확보하면서 전남의 미래 핵심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루이코노미는 전남이 가진 풍부한 청정자원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승화시키는 게 핵심으로, 블루 에너지, 블루 투어(관광), 블루 바이오, 블루 트랜스포트(운송), 스마트 블루 시티(에너지)라는 5가지 블루 프로젝트를 통해 분야별 미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남도의 미래 전략이다.

신안 압해-해남 화원 국도 77호선 개설 사업비(200억), 여수 화태-백야 국도 77호선 사업비(200억)가 처음 반영된 것도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SOC 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병원선 전남 551호 대체선박 건조사업비(총사업비 110억) 5억원 확보와 도서민 1000원 여객선 지원사업비 확보도 보건의료시설이 없는 섬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예산 확보가 미흡한 분야도 눈에 띈다. 이들 사업들은 국비 확보에 실패하거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담만 늘어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힘들게 한다는 점에서 국비 쟁기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은 애초 요구했던 145억(총사업비 1조7055억)에 훨씬 못 미치는 10억만 확보, 추가 증액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도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위한 핵심 거점 공간으로 꼽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도 애초 요구액 50억(총사업비 1156억) 중 5억만 확보하는 데 그쳤다. 신속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조성사업(총사업비 450억)과 2021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지원비(총사업비 100억), 국립현대미술관 진도관 건립( " 450억),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 " 480억) 등은 한 톨도 반영되지 못했고 남해안권 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 100억) 사업은 94억원을 요구했다가 10억만 확보해 사업 적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일본, 과거사 문제 경제문제 연계 분명 수시로 말 바꾸며 경제보복 합리화”

문대통령 임시국무회의서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은 정치적 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자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는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한 것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안보상의 이유, 한일정권교섭정 위반,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대응 등으로 오라락하며 그때그때 말 바꾸기를 일삼는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며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불행한 과거사가 있었고, 그해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됐던 독도는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다”면서 “일본은 과거사를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며 “모든 나라가 부끄러운 역사 갖고 있고 한국도 외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가 있지만,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끝없는 일로,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을 끝냈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가 지나갔다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국가와 화해하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

1566-9988

8 5 1  
116 40 point

1 6 5 2 4  
J10 20 point

6 8 2 4 7 5 8 1  
J8 14 point

2 5 1 6 4 9 7 8 3  
J7 12 point

1 3 0 7 5 8 4 9 2  
J6 10 point

2 4 6 3 7 1 2 8 0  
J5 8 point

4 6 2 8 1 0 9 7 3  
J3 6 point

5 7 6 2 1 4 3 0 2  
J2 5 point

0 1 2 3 4 5 6 7 8 9  
J1 4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J1\* 3 point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